

‘충남 아우토반’ 보령-대전 30분대 주파



道 새 고속도로 측 건설 민자 4종
국가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충청권순환서해고속도로 건설
동서축 교통망 구축 관광 활성화

충남도가 국가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남 보령과 대전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보령-대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내륙에서 서해안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도는 당진~광명(제2서해대교) 고속도로,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보령~대전+대전 제2외곽), 내포~천안 고속도로, 공주~아산천안 고속도로 사업 등 4개 SOC사업의 민간투자(민자) 유치를 검토·추진한다.

4개 사업은 총 연장 208.7km, 사업비 10조 1687억 원 상당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도는 새로운 고속도로 측 건설을 위해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행정절차가 빠른 민자 유치를 추진하며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사업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계획(5년 단위)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자 유치를 검토한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2033년 까지 사업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전체 구간은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JCT)에서 경기도 광명시 기학동 평택~파주고속도로 남광명분기점을 연

결하는 61.4km로 도내 구간은 9km이다. 구간에는 제2서해대교 기능을 할 당진~평택 해저터널(6945m)이 포함됐다.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가칭)는 보령~대전 고속도로와 대전시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최대 현안 사업이다. 거리는 약 70.5km, 사업비는 2조 2062억 원이 소요된다. 대전 또는 충북에서 서해안을 가려면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포~천안 고속도로는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와 아산천안지역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 건설 시 충남도청과 천안시청 간 이동시간은 1시간 20여분에서 35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아산천안 민자고속도로는 공주시 정안IC부터 천안 서북구 성환읍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이다. 앞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제3자공고, 실시계획 협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대에 적기 대응하고, 사업 추진이 비교적 빠른 민간투자 사업을 검토하게 됐다”라며 “민자사업의 경우라도 적격성 조사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전제조건이다.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고 대형 건설회사와의 지속 교류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3면〉

/김정원 jwkim87@korea.kr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최선”

김태흠 지사 지진피해 희생자 애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실국원장회의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구호금 지원 및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각 실과 및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원활한 모금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성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함 설치와 홍보자료 비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아님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단순 기부금품을 접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경우도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다.

〈공보관 041-635-4902〉

도정 비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민자 4종 세트 무엇인가	3면
고향사랑기부제	5면
내포순환버스 시동	7면
일자리 정보	10면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2026년 안면도서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도정 사상 8번째 국제 행사 도전
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내년 정부 승인·2025년 계획 확정

충남도가 오는 2026년 원예산업과
치유를 주제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연다.

도는 2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가
칭 ‘2026 안면도 국제원예·치유박람
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
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박람
회 개최 추진을 공식화했다.

원예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0일 동안 태안 안면도
꽃지해변 일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
이다.

도가 주최하고, 내년 구성하게 될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업비는 220
억 원, 관람 인원은 230만 명으로 설정
했다.

행사 주제는 ‘원예산업, 생활과 치
유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로 우선
정했다.

도내 농생명 자원의 브랜드와 국내
외 인지도 제고, 서해안 지역 원예·치
유 메카 육성, 지역 자원 융복합 체계
구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제고 등도 행사 개최 목표다.

생산유발 효과는 1088억 원, 부가가
치 유발 효과는 583억 원으로 추정하
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유사 행사를
조사하고, 개최 여건을 분석한다.

또 개최 목적과 목표, 방향을 구체

화하고, 행사 명칭과 주제 등을 제시
한다.

오는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8~9월 국제 공인 및 정부 박람회 신청
을 하고, 내년에는 정부 승인과 AIPH
공인 등을 받을 계획이다.

2025년에는 종합계획, 세부 프로그
램, 로드맵 등을 확정하고, 사전(Pre)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원예박
람회는 원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
하는 복합 산업 박람회로, 2002·2009년
개최한 꽃박람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
가 있다”라며 “2026년 행사를 차질없
이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 등의
절차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과 041-635-4031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월 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팀장 간담회에 참석해 열정과 의지를 갖고 힘 있게 도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맹철영

“팀장은 도정의 허리, 열정·의지 가져야”

김태흠 지사, 팀장 간담회서 강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월 6일 도청 대
회의실에서 가진 팀장 간담회에서 “팀
장은 도정의 허리”라며 “열정과 의지
를 갖고 팀 전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팀장 간담회는 매주 진행해온 실국
원장회의를 월 2회로 줄이는 대신, 내
부 소통 강화를 위해 과장 간담회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했다.

새 회의 체계 도입 후 처음 연 이날

팀장 간담회는 산업경제실과 기후환경
국,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등 5개 실국원 90여 명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모두말씀을
통해 “지난 7개월 간 팀장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민선8기 도정 과제와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도정의 허리인 팀장들은
‘큰 숲’을 보는 습관이 배어 있어야 한

다”라며 팀원들과 함께 팀 전체의 결
과물을 함께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노
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인사와 관련해서는 폭이 적었
고, 발탁 요인·능력 확인 시스템이 마
련되지 않아 균형 위주로 진행할 수밖
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앞으
로 빌터인사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공과 능력을 평정하는 시스템을
구축, 발탁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 시
스템을 보완·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보관 041-635-4915

내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

정부예산 확보 전략보고회 개최
부서별 중앙부처 방문 등 총력

충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액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
에 돌입했다.

도는 2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추
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 원보다
941억 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
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
제’는 ▲바이오매스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42억 원 ▲탄
소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
스터 조성 5억 원 ▲서해선과 경부고
속선(KTX) 연결 20억 원 등을 제시
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선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
트 건립 2억 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35억 원 ▲농촌형 듀
얼라이프 타운 조성 3억 원 등을 확
보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29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업
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은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

업 34억 7000만 원 ▲2027 하계세계
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22억 원
▲케이(K)-유교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20억 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
체육센터 10억 원 등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총 95
건 2435억 7000만 원으로, ▲충남 방
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 원 ▲차
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
축 ▲자립생활 체험 힙 설치 1억
5000만 원 ▲가고싶은 케이(K)-관광
섬 육성 사업 5억 원 ▲지역 특화 임
대형 스마트팜 140억 원 ▲농업 스타
트업단지 조성 사업 27억 20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 5억 원 ▲충
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0억 원 ▲충남 서산공항 20억 원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5억 원
▲해양생명자원 전용 조사선 건조 2억
원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
공 섬 조성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
목록에 올렸다.

도는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부서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
이다.

/예산담당관 041-635-3174

공공기관·육사 충남 유치 ‘한뜻’

법도민추진위, 실행위원회 개최

충남혁신도시유치법도민추진위원회
와 육사충남유치법도민추진위원회는
2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실행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충남
혁신도시 유치 활동 계획, 육군사관
학교 유치 활동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환경공단, 국
민체육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4개 기관 유치에 대한 목표를 공
유하고 전략을 모색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민
선 8기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이전
을 위한 관계기관 설득 및 전국적
공감대 조성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법도민추진위는 올해 국가균형위
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국정 과제
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추진 방
향을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법도민추진위 관계자는 “균형발전
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유치와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해
양 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법도민추진위는 시민사회
단체, 정계, 학계, 도민 등으로 구성
돼 있으며, 각각 공공기관 유치, 육
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해 당위성을
안팎에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모으
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유치단 041-635-3385



‘민자고속道’ 건설 충청권 균형발전 이끈다

도, 민자방식+국가계획 반영 대응
“신속한 추진 통해 교통정체 해소하고
수도권과 연계, 동서축 연결 강화”

충남도는 새로운 고속도로 축 건설을 위해 민자 4종 세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공사기간 등 추진속도가 더디다. 이에 도는 정부에 민간투자 방식을 제안하며 속도 끌어오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사업은 당진~광명(제2서해대교) 고속도로,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보령~대전+대전 제2외곽), 내포~천안 고속도로, 공주~아산천안 고속도로 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이 중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기재부에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를 의뢰해 진행 중이다. 도가 추진하는 고속도로 민자 건설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제2서해대교, 당진~광명 고속도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제2서해대교(해저터널)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2033년까지 사업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전체 구간은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JCT)에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평택~파주고속도로 남광명분기점을 연결하는 61.4km로 도내 구간은 9km이다.

구간에는 제2서해대교 기능을 할 당진~평택 해저터널(6945m)이 포함됐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교통 분산을 통한 서해대교 교통정체 완화, 서해대교 통행 제한 시 대체 경로 활용, 당진~아산 고속도로 연계,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 등이 기대된다.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자 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용역 기간 중인 2021년 7월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며 표면화 됐다.

2022년 11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를 의뢰, 진행 중이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11월 21일 도내 국토교통 분야 현안 논의를 위해 도청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를 요청하며 신속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충청권과 가진 지역발전 협력 회의에서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장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적격성조사의 현장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着手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연내 적격성 조사 통과 및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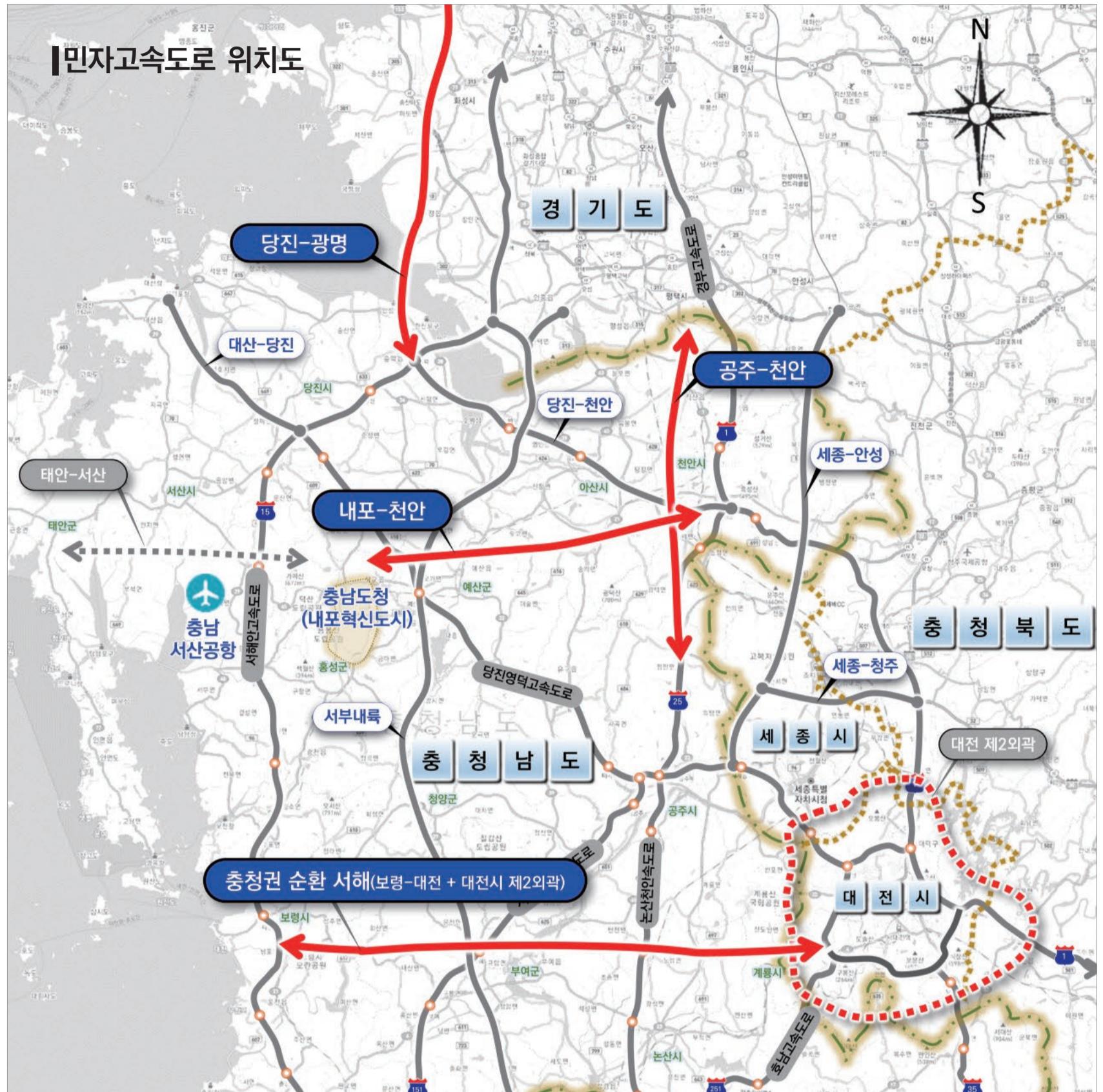
보령~대전 아우토반 30분대 접근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가칭)는 보령~대전 고속도로와 대전시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보령에서 대전 간 이동시간이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보령~대전 고속도로는 보령과 대전을 최단거리로 건설해 국도77호 보령해저터널과 연계되는 서해안의 접근성 향상 및 충남 내륙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거리는 약 70.5km, 사업비는 2조 2062억원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됐으나 국가계획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국가계획에 반영하기까지 상당 시간 소요된다.

이에 도는 보령~대전 고속도로와 대전시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두 사업을 잇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를 추진한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월 5일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추진

국토부 적격성 통과 시 사업자선정

당진~평택 해저터널 제2서해대교 기능

내륙권 대전과 세종, 충북에 바다 선물

내포신도시~아산천안 연결로 도민 편의↑

공주~아산천안 경부선 상습정체 해소

적으로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도민+기업 ‘원원’ 공주~아산천안 고속道

공주~아산천안 민자고속도로는 공주시 정안IC부터 천안 서북구 성환읍을 연결, 연장 39.4km, 사업비는 1조 5000억원이다. 본 노선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부담을 경감하는 보완 축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에 연결되며 서울과 수도권으로 바로 이어진다.

지난 2019년 8월 민간투자사업이 국토부에 제안됐고, 2022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에 최종 통과됐다. 2021년 9월에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남북3축의 지선으로 신규 반영됐다.

공주~아산천안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배방IC와 음봉IC를 각각 설치해 아산 신도시 권역에서 5분 이내에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아산 천안 신도시 일대의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면서 논산천안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한다. 아울러 물류 수송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기업체들의 애로사항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물류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아산 신도시 일대에 도시개발로 향후 5만명 이상 증가하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면서 “국가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돼 국가간선도로망 지선축 반영과 적격성 조사가 통과된 만큼 조속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협력회의에 이어 1월 31일 충청권 특별자체 합동추진단 설치 협약식에서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대전시와 충청북도에서 서해바다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2시간대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민자 추진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병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 550만 평방미터 건설과 서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 대전시, 충북, 세종 4개 시도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남도청→천안시청 35분 이동

내포~천안 고속도로는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와 아산천안지역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새정부 대통령 지역공약인 ‘태안~충주 고속도로’ 사업의 한 구간으로, 국가간선도로망 동서5축과 연계되어 동해안의 울진까지 연계되는 노선이다.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와 아산천안은 충남을 견인하는 주요 거점도시로, 두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업개요

•충청권 순환 서해(보령-대전)	2조 2062억원
•공주-천안	1조 5000억원
•당진-광명	3조 6000억원
•내포-천안	2조 8625억원

내포신도시와 아산천안지역을 잇는 국도21호는 교차로가 38개나 되며, 교통신호 미연동화 등으로 지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이다.

현재 도는 ‘내포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 건설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내포~천안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고속도로 축 반영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투자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청과 천안시청 간의 거리는 53.8km로 고속도로 건설 시 이동시간이 약 45분이 단축된 3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내포~천안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대형 건설사에 투자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내포~아산천안 연결 시 과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와 유기

‘내포 종합병원’ 건립 급물살

도-평지의료재단 첫 회의 열고
용역 착수·부지 조성 등 공유
525병상 규모 2026년 개원 목표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충남도는 2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흥성화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 흥성·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명지의료재단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내포신도시 의료용지 조성 공

사에 대한 일상감사(사전 컨설팅)를 마치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또 종합병원 건립 자금 지원 사전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병원 설치비 자금 지원 범위 및 타당성 검토, 내포신도시 의료 수요, 사업계획 규모 및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한다.

이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2026년 3월 개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2026년 개원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 명지의료재단, 흥성·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관계자 10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남연구원 관계자 1명 씩, 총 12명

으로 구성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3만 4214㎡ 부지에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급성기 350·재활요양 175) 규모로 건립 한다. 22개 진료과에 중증응급·심뇌혈관 등 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의료 인력은 총 857명으로, 전문의 94명, 간호사 414명, 기타 349명이다.

도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문을 열면 충남 서부권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포 10만 인구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유치단 041-635-3383

충남산업디자인대전 참여하세요

참가업체 3월 3일까지 모집

충남도는 3월 3일까지 ‘제37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기업지원디자인 분야 참가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도는 시각디자인과 공예디자인 2개 부문 참가 업체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 등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충남소재 기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전은 홍보 및 디자이너 공모, 작품제출 및 심사, 시상 및 전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tp.or.kr) 공지사항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산업디자인대전은 자체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업지원과 041-635-3446



충남 내포행정동우회 제3대 회장 취임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는 2월 7일 제3대 박일신 회장 취임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설립목적은 회원간 친목도모 및 국가와 도정발전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이며,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과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내포행정동우회는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나라·지역사랑운동,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내포행정동우회

도정게시판

도민 사이버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충남도 인재개발원이 도민의 지식 함양과 자격증 취득을 돋기 위한 ‘2023년 도민 사이버교육’을 시작한다.

도민 사이버교육은 11개 분야 600여 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세부 분야는 ▲도정 핵심 ▲리더십 ▲자기 혁신 ▲경영기법 ▲정보화 ▲자격증 ▲인문·교양 ▲건강관리 ▲외국어 ▲제2외국어 ▲취미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도민의 수요가 높은 자격증 분야는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정보처리기사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도민 사이버교육센터(chungnamdomin.hunet.co.kr)에 접속해 진행하면 되며, 피시(PC)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다.

/충남도 인재개발원 041-635-6555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다양화

충남도립대학교가 글로벌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인재 양성에 힘쓴다.

충남도립대는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수학위제, 해외인턴십, 해외어학연수, 영어강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복수학위제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학과는 호텔조리제빵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 등이다.

복수학위제, 해외인턴십, 어학연수는 장학금(소액 자부담)을 통해 진행된다.

/충남도립대 041-635-6610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전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중점 검사항목을 포함한 340종에서 아메트린 등 10종 추가, 350종으로 늘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52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개최

충남도는 2월 13일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로부터 총 1500만 원 상당의 4kg 쌀 1000포를 기부받았다.

도는 기부받은 쌀을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전달, 도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양표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은 “회원들이 땀 흘려 농사지은 맛 좋고 품질 좋은 충남 쌀을 뜻깊게 사용하고 싶어 기부하기로 결심했다”라며 “기부한 쌀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스마트농업과 041-635-2522

제37대 김기영 행정부지사 취임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박정주

직원들과 인사로 취임식 대체



김기영
행정부지사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충남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부지사는 지난 6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홍성 출신인 김 부지사는 대전 명석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 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안전관리정책관, 대변인 등을 거쳤다.

이필영 전 행정부지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

리를 옮겼다.

도는 이날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박정주 전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은 임명했다.

박 실장은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와 서울대를 거쳐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박 실장은 2013년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낸 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 업정책과장과 민방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담당관 041-635-3523

4-H연합회장에 김동완씨 연임

청년농업인 영입·농촌발전 기여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3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충청남도4-H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선 지난 1년간 4-H연합회 경쟁력 강화와 유능한 청년 농업인 영입에 힘써 농촌 활력 증대 및 발전에 이바지해 온 김동완(서



산·사진) 회장이 연임해 제6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회장에는 박상철 보령시연합회 회장과 임성환 흥성군연합회 회장이, 감사에는 서천군연합회 회장, 예산군연합회 회장을 각각 역임한 바 있는 차종원 씨와 정명진 씨가 선출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51

다독어린이 1명 1년간 935권 대출

충남도서관은 2월 8일 ‘제3회 충남도 서관 다독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관외 대출 권수를 기준으로 도서관리시스템 통계를 통해 부문별 순위를 결정했다.

성인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에 조규행 씨, 우수상에 이주영 씨, 장려상에 명노산 씨가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은 강은주

양, 우수상은 김현호 군, 장려상은 나현빈 군이, 어린이 부문 최우수상은 안하윤 군, 우수상은 정윤우 군, 장려상은 정나윤 양이 각각 받았다.

가장 많은 책을 빌려본 이용자는 어린이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안하윤 군으로, 1년간 대출 권수는 총 935권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서관 041-635-8065

사각지대 없는 지역의료체계 구축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 4964억

충남도는 2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사업 계획과 시군 현안 등을 공유했다.

도는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1119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보육정책과는 난임부 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의 남성 지원 조건 완화,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확대, 임산부 우대금리 이자 지원사업의 적금 상품 확대 등 출산정책 확보에 집중한다.

/보건정책과 041-635-4301

/물관리정책과 041-635-4478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복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충남도정

바다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도, 해양신산업 선도정책 발표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등

충남도가 바다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 한다.

도는 지난 2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정책 협력과 발전을 위한 ‘2023 도·시군 해양수산관계공무원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해양산업을 선도해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 방안으로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와 인증지원

센터, 해양치유센터,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등을 건립한다.

서천에 들어서는 산업화지원센터와 인증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각각 2024년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347억 원과 250억 원을 투입한다.

해양치유센터는 태안에 34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2024년 준공 예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해양분야 현장 실무형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서천에 건립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기반시설 확충은 당진 항을 수소부두 특화항만으로, 보령신항은 물류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항만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관광 거점 육성은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고, 원산도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천갯벌은 자원화해 관광벨트를 구축 내용을 담았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해양산업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해양수산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62

충남소방 매일 119원 모아 이웃사랑 실천

2년 간 4억 7794만 원 모금

충남소방의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이 한파 속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다.

‘가치가유 충남 119’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하루 119원 씩 모아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거나, 장애·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돋는 사업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사업 첫 해인 2021

년 2억 6821만 원, 지난해 2억 973만 원 등 총 4억 7794만 원을 모았다.

모은 기금으로 2021년 54가구, 2022년 73가구 등 127가구를 지원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피해로 집을 잃고 마을회관에서 생활해 온 A씨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중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을 입었거나 질병을 가진 자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하나 법·제

도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가운데 선정한다.

각 소방서에서 추천받아 분기 또는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결정한 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가치가유 충남119 참여는 충남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s://www.cn119.go.kr/index.cn119>) 안내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690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 원”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충남도는 ‘2023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I·II’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매달 본인 저축액에 추가로 정부가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

달 적립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I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며, 3년간 근로하고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점 탈수급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I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 대상이며, 3년간 근로하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81



배우 강부자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동행 응원 캠페인 시작

온·오프라인 기부시 담례품

충남 논산 출신 배우 강부자(사진)

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의 첫 주자로 나섰다.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인 강 씨는 전국에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자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강 씨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충남의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충남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을 이어감과 동시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

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개인이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담례품(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뒤 기부 자체 선택, 기부자 주소지 조회, 결제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담례품은 기부 포인트 생성을 확인하고 기부 지자체 담례품 선택 화면에서 고르면 배송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때는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엔에이치(NH)농협 지점을 찾아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면 터키서·동의서 작성, 기부금 납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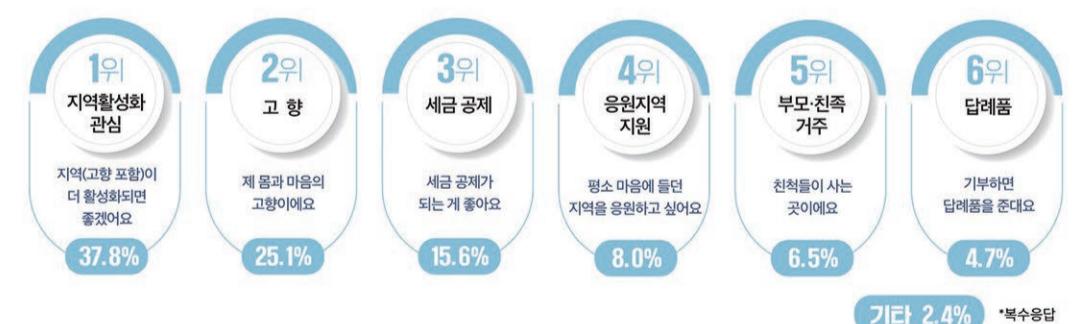
/새마을공동체와 041-635-2312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태안 백화산 서해안 대표 힐링 산행지로 '각광'

국보 제307호 태안마애삼존불
태을암, 흥주사 등 볼거리 풍부

[태안] 충남 태안군의 제1경으로 손꼽히는 백화산이 서해안의 대표적인 힐링 산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백화산에 설치된 무인계측기를 통해 등산객 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3만 5224명이 백화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출입로에 대한 수치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백화산을 방문한 입산객은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발 284m 높이의 백화산은 '흰 꽃의 산' 이란 뜻으로 흰 돌로 덮인 산이 꽃처럼 아름다워 지어진 이름이다. 정상에 서면 그림처럼 펼쳐지는 서해의 리아스식 해안을 마주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없이 오를 수 있는 산이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에 지어져 외적의 접근을 막았던 고려시대의 백화산성 터를 비롯해 백제의 수준 높은 불교 미술을 접할 수 있는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307호) 및 태을암, 흥주사 등 볼거리도 풍부하다.

태안에서는 백화산이 '흑화산', 즉 검은 산으로 바뀌면 만 명의 문인과 천 명의 무인(文萬武千)이 나온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나무를 많이 심어 흰 바위를 가리면 '흑화산'이 되기에 예부터 나무를 심으려는 군민들의 노력이 있어왔다. 현재 나무가 무성한 백화산은 전설 속 흑화산이 돼 지역 발전을 기대케 하고 있다.

태안군도 백화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을 걷어붙이고 있다. 군은 지난



흥주사 옆 소나무 숲에 조성된 공중 산책로 '백화산 트리워크'.

2020년 3028m 길이의 백화산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산 정상을 향하는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산 아래를 거는 등산로'로도 화제가 됐다. 산행을 어려워하는 이들도 완만한 길을 걸으며 백화산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백화산 초입의 '샘골'에는 공원을 조성했다. 2021년 준공된 샘골 도시공원은 오랜 기간 방치된 샘골을 재정비 한 것으로, 샘골의 발원지를 키워 사

시사철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추억을 재현해냈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교량 및 정자를 설치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흥주사 옆 소나무 숲에 공중 산책로인 '백화산 트리워크'를 조성해 개방했다. 4.5m 높이에 있는 총 연장 248m의 트리워크는 공중을 한가로이 산책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백화산 아래자락에 있는 '냉천골'도 새롭게 바뀐다. 군은 군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냉천골에 물놀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준의 수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가재와 다슬기 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다공질의 돌을 쌓는 등 냉천골 고유의 자연환경을 적극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군 제공



천안 12개 대학 연합 문화축제 개최

취업박람회, 체험프로그램 등

[천안] 충남 천안시가 지역 내 12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대학 연합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2개 대학 학생처장, 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 대학 연합 문화축제 기획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대학과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과 시가 상생하는 대학도시 천안을 위해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이며 문화행사, 취업박람회, 진로탐색 행사, 작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 할 계획이다.

시는 대학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고자 기획단을 구성했으며, 행사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대학과 시가 상생하는 대학도시 천안을 위해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천수만에 흑두루미·큰고니 몰려 장관

독수리 등 법정보호종 도래

[서산] 세계적 철새도래지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에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이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일본 이즈미 지역에서 월동을 마친 흑두루미를 비롯해, 독수리, 큰고니, 황새 등 법정보호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의 경우 일본 이즈미 지역의 흑두루미가 북상을 시작하자 8일 기준 7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천수만을 찾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수리는 겨울 동안 시로부터 지속적으로 먹이를 제공받아 꾸준히 50여 개체가 월동하고 있으며, 낮에는 화려한 비상으로 서산버드랜드를 찾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큰고니는 그동안 흑한으로 결빙



천수만에 찾아온 큰고니 모습.

됐던 간월호가 녹기 시작하면서 석지저수지 등에 분산됐던 개체들이 다시 천수만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황새는 서산버드랜드 내에 설치된 인공동지에 예산황새공원에서 방사한 개체와 야생 황새가 짹을 이뤄 둑지를 꾸미는 등 번식행동을 보여주고 있어 방사 개체와 야생 개체의 번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관계자들

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은 "천수만에 도래하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서식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정적으로 휴식 후 번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먹이 제공 및 서식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시 제공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예방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공간상으로 우리 삶의 영역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많은 편리함과 이로운 혜택들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 기술에 바탕을 둔 폭력이나 범죄가 대표적이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디지털 공간(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으로써 수 많은 피해자를 동시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피해

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단 디지털 공간에서 불법 신체촬영물이나 설사 자신이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 복제되기 시작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모두 삭제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돈이 매개가 된 영상물의 판매나 소비로 연결되어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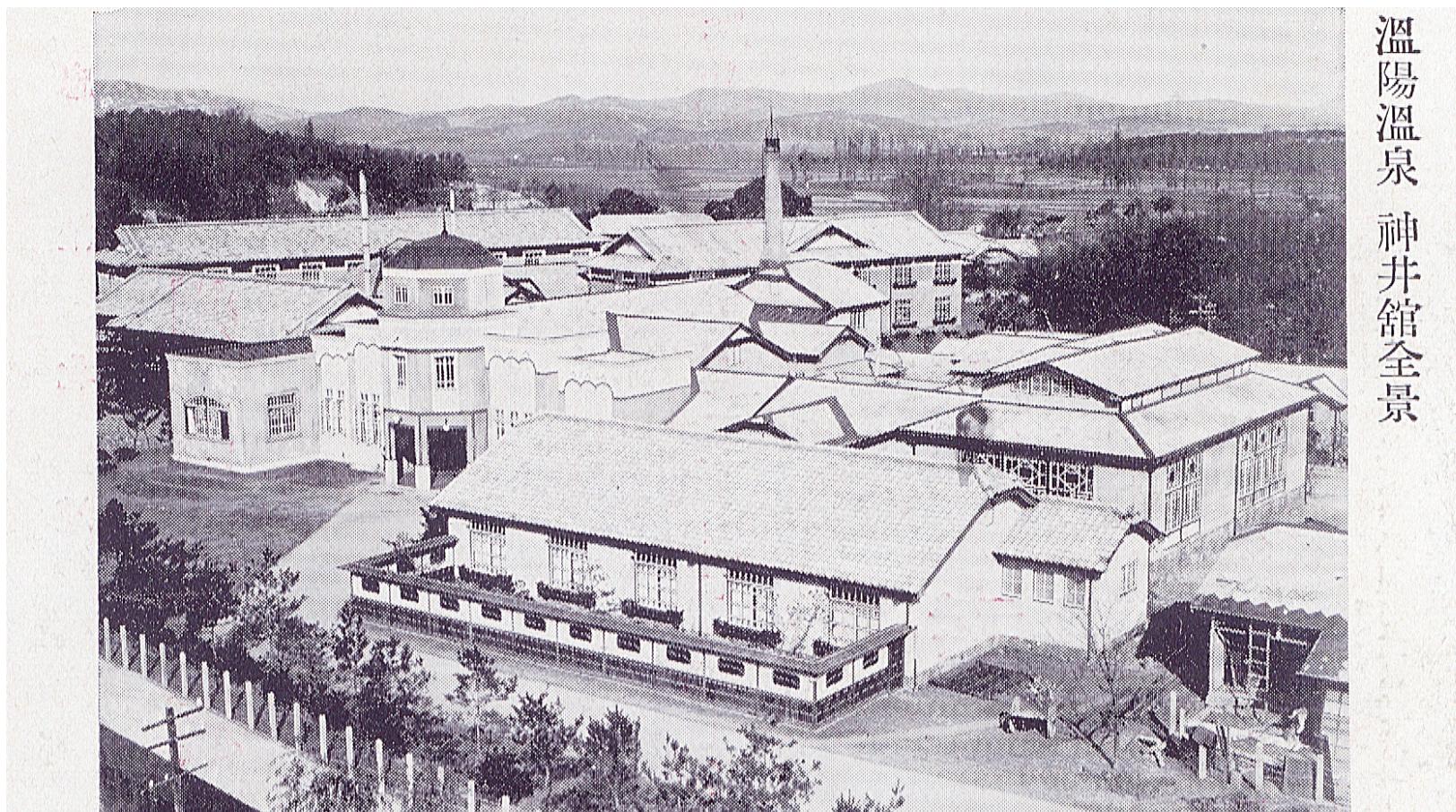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이 쉽게 발생하고, 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한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상물을 그저 '야한 동영상'을 구매하여 '소비'한다는 생각을 할 뿐,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라거나 디지털 성폭력에 관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 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한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를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인식을 바꾸어나가는 교육과 예방 사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기 연령대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존중과 소통방식의 습득, 성평등 감수성 등을 체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생활 속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디지털 공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보다 안전한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

/김영주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溫陽溫泉神井館全景

온양온천 신정관 전경. 1938년 제국대관사에서 간행한『약진조선대관』 속 경남철도(京南鐵道) 및 온양온천 광고에 포함된 신정관의 전경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신정관은 이완이 베르디 황제 추도식에 참여했다가 애국열사 이재명의 급습을 받고 큰 부상을 입어 온양별장으로 내려와 요양을 한 곳이다.

사진/서울역사아카이브

이완용 “기왕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있겠소?”

격동의 충남 100년

매국노 이완용, 溫陽에서 경찰권 포기하다



이완용(1855~1926) 대한제국 관료, 을사오적, 주요 친일파.

日 조선군대 해산, 사법권 빼앗고 경찰권 박탈작업 이완용에 제의

급습에 부상 온양별장서 요양 중 데라우찌 통감 경찰권 위임 방침 1910년 6월 경찰권 이양 동의 각서

지난해 10월 21일 제77회 경찰의 날 기념식이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하에 성대하게 열렸다. 경찰의 날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그 해 10월 21일, 미군정청이 경무부를 발족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조병옥 박사가 전국 경찰조직을 다스리는 경무부장을 맡았다. 충남 천안 출신의 조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 아래서 내무장관에 올라 6·25 전란 속의 혼란한 치안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리산, 대둔산 등 산악지대에서 활동하던 산악부대에도 많은 공로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경찰 역사가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구한말 우리도 현대식 경찰제도가 출발했으나 얼마 안 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해체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 경찰권이 일본에 빼앗기는 역사적 사건이 충남 온양에서 벌어졌다. 일본은 1907년 이준 열사의 헤이그 밀사 파견을 이유로 고종을 퇴위시킨 데 이어 조선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조선의 사법권을 빼앗았으며 마지막으로 경찰권 박탈작업에 나섰다. 조선의 황실 안전을 위해서는 일

본 경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꽃이 된 것.

구한말 총리대신 이완용은 일본 통감부로부터 경찰권 이양에 대한 끈질긴 제의를 받았으나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러나 1909년 12월 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있은 벨기에 국왕 레오폴 2세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던 이완용 총리대신이 애국열사 이재명의 급습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추운 겨울 두터운 외투를 입었던 이완용은 허리와 어깨 등 3군데를 칼로 찔려 큰 부상을 입고 온양 별장으로 내려와 요양을 했다. 온양으로 내려오면서 박제순 내부대신을 총리서리로 임명했다. 박제순은 1894년 충청도 관찰사로 동학혁명군의 공주 우금티 전투에서 일본군과 함께 동학군을 무참히 패퇴시킨 인물이며 역사는 그를 ‘을사오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완용이 묵고 있는 온양 별장은 경비가 삼엄했다. 충청도 곳곳에서 의병들이 봉기했고 이완용 자신이 이재명 열사에 의해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완용의 침실 천정에서 이상한 인기적이 발생했다. 잠에서 놀라 일어난 이완용은 머리맡에 놓았던 권총을 꺼내 들고는 천정의 소리 나는 곳을 응시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틀림없이 괴한이 침입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탕! 탕! 총성이 놀란 옆방에 있던 경호대장이 달려 왔다. 이완용은 천정을 가리키며 ‘괴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호 대장은 다른 경호원과 함께 천정을 뚫고 올라갔다. 그러나 천정 안에는 괴한 대신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이완용은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이튿날 고양이를 급히 구해 침실에 놓아길렀는데 그로부터는 쥐 소동이 없어졌다.

이완용의 쥐 소동은 서울까지 퍼져 월남이상 재 선생 같은 분은 이완용에게 조종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쥐 소동은 멈췄지만 이번에는 통감부에서 다시 조선 경찰권 이양을 조르는 일이 벌어졌다. 그해 6월 23일 통감부의 오꾸라 비서관이 서울에서 내려와 이완용에게 면담을 청했다.

오꾸라는 별명이 ‘여우’였는데 그렇게 간교하게 구한말 조선을 농락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완용에게 문서를 꺼내 놓고는 서명을 하라고 했다. 서류는 조선의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이완용은 아무리 친일파라 해도 일개 비서관 신분으로 명색이 총리대신인데 위압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것에 불쾌하여 일단 거절하고 돌려보냈다.



〈왼쪽 사진〉1898년 명동성당. /명동대성당 〈오른쪽 사진〉이재명은 1909년 12월 22일 서울 종현천주교회당(현 서울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국왕 레오폴 2세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던 이완용을 명동성당앞에서 암살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였다. 당시 이완용은 치명상을 입은 듯 했지만 일본인 의사의 외과 수술로 목숨을 건졌다.



이완용은 1882년(고종19) 문과에 급제하고 요직을 거쳤다.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대한 침략이 가시화 되자 대한제국은 이완용을 미국공사관으로 보내 파천하고자 했으나 이미 미국은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완전히 밭을 뺀 상태였다. 이후 이완용은 친일파로 전향하여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나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기며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그러나 오꾸라는 서울로 가지 않고 온양에서 묵은 다음 이튿날 다시 이완용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완용은 자신이 요양 중이고 박제순 총리서리가 있으니 그와 상의하라고 거절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오꾸라가 아니었다.

오꾸라 비서관은 통감부 정무총감 이시쓰까에게 연락하여 이완용 앞으로 전보 한 통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초대 통감 이등박문 후임으로 데라우찌 육군 대장이 임명되어 서울 부임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데라우찌는 강경하고 무단통치로 악명이 높은 인물. 그래서 이시쓰까 정무총감은 온양에 있는 이완용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발송했다. 내용은 “경찰권 위임에 대한 사항은 새로 부임하게 된 데라우찌 통감의 지시에 의한 것임. 본관은 각하가 금일 중에 경찰권 위임에 대한 각서 조인의 뜻을 각하의 대신들에게 주지 시켜 주시길 희망함. 본관은 각하께서 협력을 함으로써 제국이 바라는 경찰권 위임이 순조롭게 이루어 졌다는 보고를 할 수 있기를 확신함”이었다. 오만하기 짜이 없는 협박문이었다.

이완용은 이 전보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경찰권 문제가 데라우찌 통감의 확고한 방침임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친일파의

두목 이완용이지만 경찰권 문제로 데라우찌의 미움을 사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친일행적도 물거품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완용은 온양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경찰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오꾸라 비서관을 불렀다. 그리고는 “기왕 이렇게 된 것 내가 어쩔 수 있겠소?”하고는 오꾸라가 내미는 경찰권의 일본 이양에 동의한다는 각서에 ‘총리대신 이완용’이라고 서명을 했다. 1910년 6월 23일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6월 24일 오후 8시, 조선의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조인식이 이루어 졌다.

이로써 우리의 마지막 주권, 경찰권마저 빼앗은 일본은 그로부터 두 달 후인 8월 29일, 나라까지 완전히 빼앗은 한·일합방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주권, 경찰권이 온양에서 이렇게 강탈당했던 것이다.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돋는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만 6세 이하 6158명, 만 7~12세 6681명, 만 13~15세 2630명, 만 16~18세 1289명 등 총 1만 6758명으로 2010년 6953명과 비교해 2.41배 증가했다.

필수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세계적(글로벌) 인재 양성 ▲다문화가족 취·창업 프로그램 ▲상호 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신문 발간 ▲외국인주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며, 도내 전 시군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필수 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심리·정서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시군별 신규 사업 발굴추진 등 시군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도 선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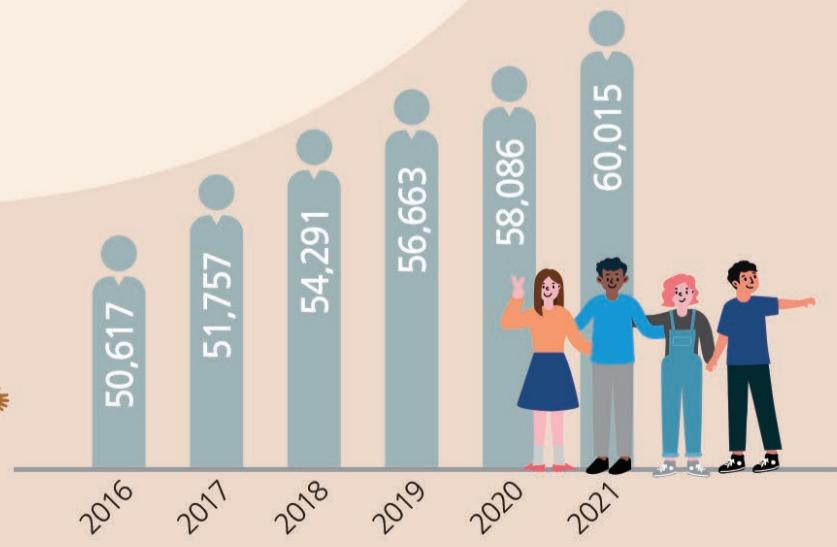
/도정신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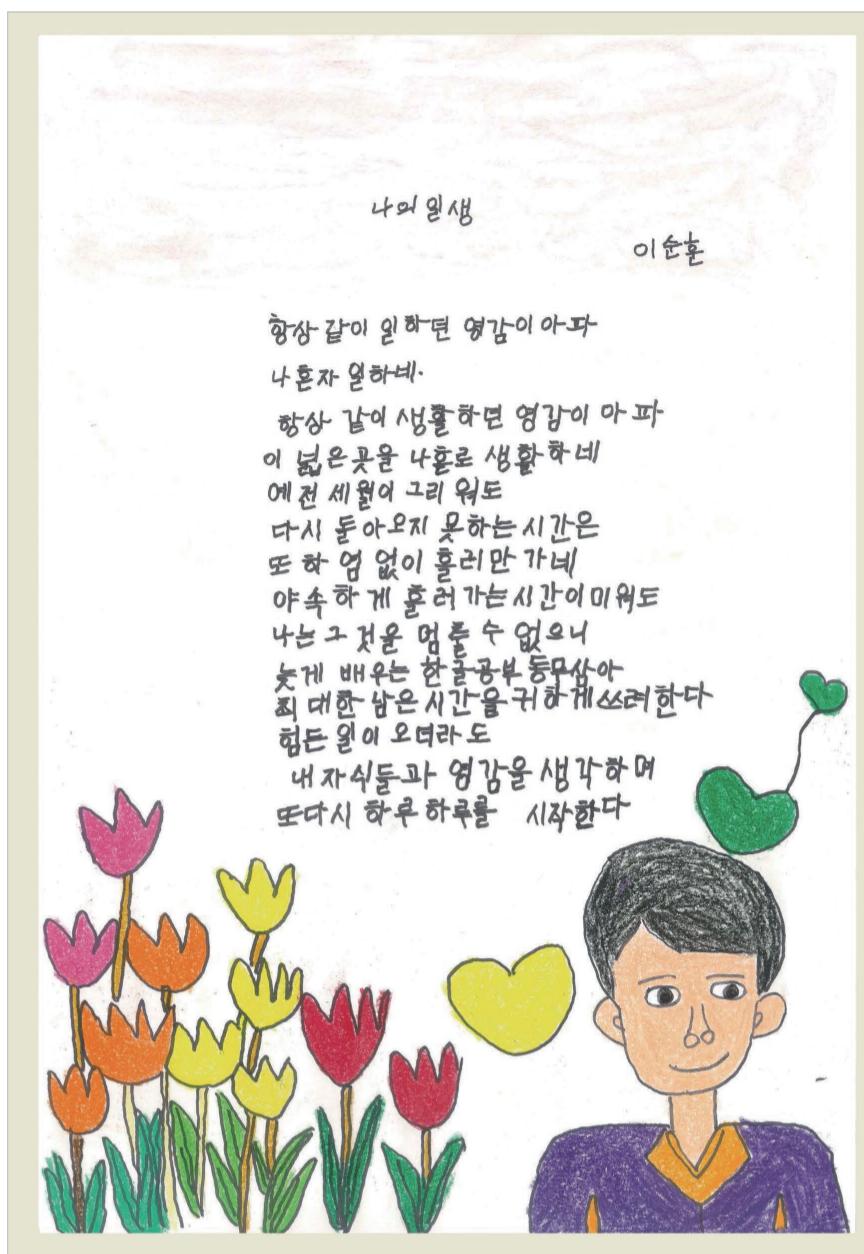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자녀 수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연도별 다문화가구원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높시 가왕



그리운 마음 글과 그림으로....

얼마 전에 선생님이 오늘은 시화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그게 뭔지 도통 몰랐다. ‘시’라는 것은 한글 배우면서 선생님과 같이 써보았지만 ‘시화’는 처음 들어본다. 글도 잘 모르는데 시를 적으라고 하고 그림도 그리라고 한다. 나는 “자신 없어요.” 했지만, 선생님은 막무가내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같이 해요.”라고 한다.

선생님께 물어물어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지우고 또 그리고 지우고 했다. 내가 그린 그림에 색칠하는 것은 그

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며칠 동안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여 완성했고 글도 모르던 내가 이름을 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좋아하는 색칠도 했다.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한다. 내가 자식들한테 글로 칭찬을 다 듣고, 눈물이 핑 돈다.

요즘 남편 보내고 그 자리가 하전하고 힘든 마음 다스리기 위해 그림책에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색칠하면서 그리운 맘을 달랜다.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일자리 정보

※문의 - 충청남도일자리종합센터 ☎ 041-330-4972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GMS전동기기	지게차 정비원	1명	041-588-7195	연 3,000만원 ~	논산	의료법인 예향의료재단	간호사	2명	041-736-7584	연 3,400만원 ~
천안	천안아파트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작원	2명	041-553-8382	시급 15,000원 ~	보령	미쉐린타이어보령점	자동차 정비원	1명	041-935-4855	월 230만원 ~
천안	(주)송광프라스틱	생산·품질 사무원	1명	041-567-2205	연 3,700만원 ~	보령	주식회사송도수산	사무 보조원(일반사업체)	2명	041-935-7776	월 210만원 ~
천안	우리테크	배송·납품 운전원(납품영업 포함)	1명	041-907-3600	연 3,000만원 ~	보령	메디팜다형약국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1명	041-931-8898	월 217만원 ~
아산	(주)블루테크	전기용접원(아크, 일곤, 티그용접원)	2명	041-532-8842	연 3,500만원 ~	보령	주식회사영흥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1명	041-939-3952	연 4,500만원 ~
아산	(주)아성주류	배송·납품 운전원(납품영업 포함)	2명	041-543-1881	연 4,200만원 ~	계룡	(주)서부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2명	042-536-0112	시급 9,620원 ~
아산	(주)한솔에스앤피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041-543-5111	월 280만원 ~	계룡	주식회사시충청오토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1명	042-841-2691	연 3,400만원 ~
아산	주식회사삼의리프트	지게차 정비원	4명	031-683-9005	연 3,000만원 ~	계룡	굿모닝요양원	간호조무사	1명	041-631-8988	월 220만원 ~
당진	(주)우성	시멘트,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명	031-683-0029	연 3,200만원 ~	계룡	논밭상점	농업 단순 종사원	2명	041-633-2168	시급 9,620원 ~
당진	한국클린씨터미널 주식회사	세차원 및 운송장비 청소원	1명	070-4456-7831	월 220만원 ~	홍성	주식회사수천중공업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635-0602	연 3,200만원 ~
당진	(주)동우실업	환경, 청소 관리자	3명	041-352-3696	월 220만원 ~	홍성	(주)한소울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10명	041-642-7740	월 230만원 ~
당진	(주)에이식	수상 운송 사무원(해상운송)	1명	041-352-3801	월 234만원 ~	예산	농업회사법인예당 식품주식회사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1명	041-333-0747	연 2,500만원 ~
서산	(주)월드농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1명	041-665-6663	연 3,000만원 ~	예산	(주)우진이앤씨	굴착기(굴삭기, 포클레인) 운전원	2명	041-333-0472	월 300만원 ~
서산	(주)한국진공야금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명	070-8220-1999	연 3,300만원 ~	태안	네이처영농조합법인	농업 단순 종사원	4명	041-675-5533	월 201만원 ~
서산	(주)우성금속	생산·품질 사무원	1명	041-669-7221	월 250만원 ~	태안	만대수산	어업 단순 종사원	2명	041-673-9289	월 210만원 ~
서산	(주)현대계전	전기공사 기술자	2명	061-686-3661	연 4,500만원 ~	서천	주식회사이엠테크	경리 사무원(제조)	1명	041-953-3434	월 220만원 ~
공주	(주)신일팜글라스	전기, 전자 제어장치 설치 정비원	1명	041-853-4211	월 300만원 ~	서천	피에스아이	제조 단순 종사원	10명	041-955-2871	월 300만원 ~
공주	의료법인세종프라임 의료재단	간호사	1명	041-851-8241	연 3,000만원 ~	부여	(주)신기건설	토목시공 기술자(토목견적, 공무포함)	1명	041-836-3900	연 6,000만원 ~
공주	백교정미소	배송·납품 운전원(납품영업 포함)	1명	041-841-3737	연 3,000만원 ~	부여	맑은환경기술	수질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041-354-5124	연 3,020만원 ~
공주	주식회사신광하이텍	생산·품질 사무원	1명	041-841-2470	연 3,300만원 ~	금산	디엔에스개발(주)	시설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6명	041-751-9999	월 201만원 ~
논산	신기술(주)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명	041-732-3491	월 250만원 ~	금산	대륙체육산업	전기용접원(아크, 일곤, 티그용접원)	2명	041-752-5176	연 3,500만원 ~
논산	주식회사한테크	유리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5명	041-735-7353	연 3,000만원 ~	청양	(주)우일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5명	02-2243-0205	월 201만원 ~
논산	논산사랑요양병원	병원 급식 조리사	1명	041-733-0300	월 250만원 ~	청양	주식회사로컬몬스터	사무 보조원(일반사업체)	2명	041-975-9807	월 210만원 ~

2023.2 문화달력

자료제공/충남문화재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マイ클리, 박기영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음악회"	17	18 조향조&진성 <양상불콘서트>-천안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다섯가지의 감정들 - 전시회 기간: 2023-01-17 ~ 02-05 장소: 충남도서관 3층 다목적실		EAT, PLAY, LOVE - 테리보더 사진전 기간: 2023-02-10 ~ 2023-04-09 장소: 연산문화창고 4동 다목적홀				
도전! 구석기 생존 캠프 2023 생각하고 느끼는 박물관 기간: 2023. 2. 11.(토) / 2. 12.(일) 장소: 석장리박물관 내 체험학습관, 전시관, 야외유적 요금: 10,000원(중식비포함) 문의: 041-840-8938, 8932						
달이 참 밝습니다 - 이동연 초대 개인전 기간: 2023-01-04 ~ 02-26 시간: 10:00 ~ 요금: 무료 장소: 복합문화공간 모나무르 갤러리 더 퍼플 4관 문의: 041-582-1004		•2022 소장품 상설전 이응노, 그리다 기간: 2022. 12. 06. ~ 2023. 03. 05. 시간: 10:00 ~ 18:00(월, 설 연휴(1.21~24) 휴관) 장소: 이응노의집(충남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문의: 041-630-9232				
여름에는 연꽃, 겨울에는 철새 계절마다 새로운 아름다움		•에꼴드 아미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기간: 2022. 10. 24. ~ 2023. 03. 28. 시간: 10:00 ~ 18:00(월 휴관) 장소: 당진 아미미술관(충남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문의: 041-353-1555				
“저 새 조형물 아니야?”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도 끔짝도 하지 않고 서 있던 커다란 새가 갑자기 물속으로 고개를 쳐박습니다. 물방울이 튀어 오르고 머리 뒤 맹기깃이 휘날립니다. 눈 깜짝할 새에 작은 물고기가 왜가리의 부리에 물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2022 아미마켓 - 상상력에게 展 기간: 2022. 11. 28. ~ 2023. 03. 28. 시간: 10:00 ~ 18:00(월 휴관) 장소: 당진 아미미술관 문의: 041-353-1555				
여기는 백제의 고도 부여의 궁남지 철새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수양버드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한 서동공원 궁남지는 사시사철 참 아름답습니다.						
※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거장, 그리고 봄 일정: 3월 30일(목) 시간: 19:30 장소: 공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 관람료: 전석 10,000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 할인, 20인 이상 단체 20% 할인) 문의: 041-856-0778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부여 궁남지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여름에는 연꽃, 겨울에는 철새
계절마다 새로운 아름다움

“저 새 조형물 아니야?”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도 끔짝도 하지 않고 서 있던 커다란 새가 갑자기 물속으로 고개를 쳐박습니다. 물방울이 튀어 오르고 머리 뒤 맹기깃이 휘날립니다. 눈 깜짝할 새에 작은 물고기가 왜가리의 부리에 물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백제의 고도 부여의 궁남지



왜가리가 사는 모습.

입니다. 궁남지(宮南池)는 현존하는 최초의 인공 연못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무왕 35년(634년)에 궁궐의 남쪽에 물을 파고 20여 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둥근 연못 가운데 섬에는 정자(포룡정)가 있고, 뒷가에는 버드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주변에 연꽃이 만발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겨울철에는 수많은 철새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궁남지에는 크고 작은 새들이 정답게 어울려 삽니다. 어쩌면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새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수양버드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한 서동공원 궁남지는 사시사철 참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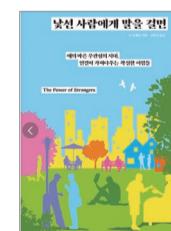
※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민리포터 대로

예의 바른 무관심의 시대, 연결이 가져다주는 확실한 이점들



사서들의 서재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조 코헤인/아크로스/2022)

길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

나의 초등학생 시절 종례는 항상 저 문장을 외치는 것으로 끝이 났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종종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는 현대의 믿음은 왜 생겼을까? 이 책의 저자 이자 저널리스트 조 코헤인은 낯선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취재 여행을 시작했다.

저자는 15개 국가에서 ‘낯선 이들의 성장’을 진행한 옥스퍼드뮤즈재단의 시어도어 젤딘부터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책과 사람 이야기를 SNS에 실거나

르는 ‘서브웨이 북 리뷰’ 운영자, 지하철 승강장에서 토크바를 열어 무작위의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뉴욕 지하철 살롱’의 진행자

까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 재기 넘치는 인터뷰를 읽다 보면 낯선 사람에게 지녔던 고정관념이 깨지고, 다른 세계를 만날 용기가 한 뼘 더 커진다.

혹시 길을 걷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예전에는 길이나 가게 위치를 가끔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 지

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럴 일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상대방이 나를 귀찮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선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기꺼이 말을 걸어보라고 권유한다.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기 힘든 사람에게 친화력을 키우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과 굳이 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고 사람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회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충남도서관 박세진 사서

‘생명을 키운다는 사명감’으로 건강한 밥상문화 꿈꿔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청양서 7년째 한우농장 운영

신기농장 신기민(32세) 대표

소를 돈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

매일 청소해 깨끗한 환경 자부



청양군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기민 씨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청양군의 광활한 논들 사이를 지나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 위에 자리한 신기농장을 찾았다. 낯선 사람을 보고 구경하듯 물려든 소들 너머, 축사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신기농장의 신기민 대표(만 32세)를 만났다. 신 씨는 한우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7년 차 청년 농부다.

상토·퇴비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일을 돋다가 가축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만들려고 근처 축사를 매입하면서 한우 20마리로 시작한 것이 7년이 지난 현재 직원 2명과 함께 360여 마리로 늘어난 소를 돌보고 있다.

신기농장은 어느 축사보다 깨끗한 환경임을 자부한다. 수시로 바닥을 청소해주면서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한우 농장은 바닥 관리와 청결 유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악취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축사는 자연적인 위치가 좋아 바람도 잘 통하고 청소를 잘해줘서 냄새가 거의 안 나는 편입니다”

신 씨가 축사 청결 유지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를 ‘돈’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가치관에서 비롯됐다.

“도축되는 소들은 30개

월 정도 농장에서 지냅니다. 그 시간 동안은 건강하게 스트레스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신 씨는 자연 친화적인 축산업도 꿈꾸고 있다. “코로나 발생 전, 유럽으로 소 목장 견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맘껏 뛰어놀며 자라는 소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럽 및 축산선진국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의 가축사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많은 젊은 세대들은 유학 및 여행 등으로 선진국의 다양한 문화 경험을 많습니다. 특히 신선한 먹거리

문화를 많이 접해 현재 젊은 층의 식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목초육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밀집사육 및 사료사육문화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사육방식으로 건강한 밥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요즘 신 씨는 축산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7년 동안은 비어있던 축사를 채우기 위해 출하량이 적었습니다. 작년 중순쯤부터 출하될 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 이제 수익을 올리려던 순간, 코로나 및 환율급등으로 인한 사료·건조값 폭등과 한우값 폭락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는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에 축산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라며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 등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지길 희망했다.

축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겪어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청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어서 진입장벽은 높지 않지만, 생명을 키운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해주세요”라고 조언했다.

/이해든 deun127@korea.kr

드럼 신동 강현석 군, 베클리음대 이어 국내 유수대학 합격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

대학교 실용음학과 동시 합격

[서산] 2022년 17살 나이에 베클리음대에 합격했던 서산의 아들 강현석(18세·사진) 군이 또다시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학과(드럼)에 동시 합격했다.

강 군은 지난해 11월 실기시험과 영어 인터뷰를 거쳐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2월 베클리음대에 최종 합격했으며, 올 들어 다시 서울예술대학교(80:1) 및 동아방송예술대학교(60:1)의 2023년 정시모집에 응시하여 당당히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강 군의 부모는 “실용음학과 중 최고로 알아주는 이들 3개 대학에 합격한 것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기도 하여



더 뜻깊다”며 “특히 어린나이에 베클리음대에 합격했지만 코로나19 및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여 혼자 미국유학 길에 올라야 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는데 국내에도 도전하여 이룬 성과라 너무 장하다”고 소감을 전해왔다.

강현석 군은 “현재 미성년자로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워낙 형·누나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걱정보다는 즐거울 대학생활이 더 기대된다”

며 “드럼 신동에서 드럼 천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최고의 대학에 동시 합격한 강현석 군은 서산 팔봉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천재드러머 김태현(베클리음대 죄연소 졸업, 뉴잉글랜드 대학원 졸업)을 스승으로 만나 중학교를 중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을 인정받아 음악공부에 전념했다.

/서산시대 제공

이장만 24년째…이재영 송남2리 이장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위해 노력



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위해 이재영 회장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의 관광객 유입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지난해부터 지역 내 기업과 9개 자생단체가 함께 사랑의 김치나눔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김치나눔행사로 관내기업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매김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베풀목이 돼 훈훈한 사랑을 나눴으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성거읍 이장협의회 활동

이재영 회장은 송남2리에서 천안 지역대표 농산물인 샤인머스켓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천안은 전국 최고의 포도 생산지이며 특히 성거읍은 거봉포도와 샤인머스켓 고장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포도 농가가 많은 만큼 판로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협과 직거래 판매를 중개하고, 수출을 통해 포도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다양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재영 이장협의회장은 성거읍 전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지금의 성거읍이 있도록 만들어준 산 증인이기도 하다.

/천안신문 제공

15년 농부의 삶 시로 녹여낸 문현수 시인 등단

당진시4H연합회장 역임

[당진] 당진신문에 농부의 시를 연재하고 있는 문현수(사진) 씨가 문예지 문학고을 시부문에서 신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시인으로 등단했다.

문현수 시인은 2008년부터 15년간 농부의 삶, 그리고 사람과 아내에 대한 애정을 담아낸 시를 당진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농부 시인이다.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300여개의 작품을 보유할 정도로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시인 등단을 목표로 작품을 준비했고,

문학고을에서 진행하는 제46회 2차 공모에 소나무 외 6편을 응모해 ▲서리 ▲장작불 등 2편이 당선됐다.

문현수 시인은 “평생의 꿈이었던 시

인 등단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감개무량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농부들의 삶,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시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문현수 시인은 당진시4H연합회장, 송산면농업경영인회장을 역임하는 등 당진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당진신문 제공

또라이를 키우자!

내포칼럼



서창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최근 갑자기 “챗GPT”이라는 것이 장안의 화제다.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거나 사용도 해 봤을 것이다. 무슨 질문이던 척척 답을 해주는, 미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이다.

과거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은 기존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챗GPT는 자료를 사전 학습하여 질문에 맞는 답을 작성해 주는 챗봇으로, 그 수준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고 있다. 원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원하는 그림도 그려주며, 원하는 시나 문학작품도 써 준다. 심지어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난이도가 있는 시험도 통과하고, 대학원 과제물도 제출하여 A+를 받을 정도로 수준 높은 지적 능력을 과시한다. 단순 검색 수준이 아니라 창작과 편집을 거의 사람 수준으로 하게 되면서, 각급 학교에 비상령이 내려졌고, 검색의 절대 강자 구글이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기존 시장이나 제도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기계가 사람을 넘어서 수 있는 가능성과 우려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이 혁명적인 챗봇은 샘 알트만(Sam Altman)이라는 37세 청년이 창업한 오픈AI라는 작은 회사에서 만들었다. 창업자는 19세에 Loopt라는 소셜네트워크 앱을 창업하였다가 실패하고, 스텐포드대학에 다니다가 중퇴한 청년으로 2015년 창업 당시 나이가 갓 30세였다. 30대 청년이 세상을 깜짝 놀라

게 하는, 구글이라는 최고의 빅테크 기업을 긴장시키는 혁명적인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었다. 그는 대학 졸업장도 없는 대학 중퇴자다. 19세에 창업을 하였다가 실패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동성연애자이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단아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쓸데없는 짓을 한” 꼴이다. 흔히 말하는 “문제야” 또는 “또라이”류의

이한 생각을 하는,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난다. 특히 미국의 서부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에는 지금도 자신만의 기이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으려 다니는 “또라이”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인정해주는 투자를 만나면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인 기술이 탄생하게 된다. 미국을 위대하다고 하고, 앞으로도 당

다. 어떻게 하면 조직, 사회에서 또라이를 없앨 것인가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다. “제발 또라이 짓 좀 그만해라”가 선배나 어른들, 부모님들의 가장 흔한 중고다. 심지어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또라이를 배척하고 낙인 찍는다.

학교에서부터 또라이는 배척된다. 기준이나 표준에서 벗어나면 불량생이다. 사회나 직장에서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다수와 다른 소리를 하면 열외가 되거나 이단자가 된다. 평균을 벗어나거나 남과 다르면 이상하게 본다. 나이와 학력과 지역으로 줄 세우고 계층으로 구분 짓는다. 일사분란하고 잡음이 없어야 한다. 무엇인가 다르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 어렵다. 아이폰이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혁명적인 기술이나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기분적인 원인이다.

미국과 같이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려면 우리 주위에 또라이가 많아져야 한다. 기이한 생각과 행동, 남들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우리 주위에 다양한 또라이를 찾아서 다름을 인정하고 키워야 한다.

다양한 만큼 건강하고 혁신적인 사회가 되고, 창의적인 조직이 가능하며, 수 많은 또라이가 탄생하게 된다.

우리 모두 또라이가 되자!

“

세상을 바꾸려는 꿈가진 ‘또라이’ 많아야 일사분란한 조직에선 혁명적 기술 못나와

”

청년이다.

미국에는 이러한 일명 “또라이”들이 많다. 스마트폰이라는 신문명을 창조한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 빌 게이츠가 그랬으며, 전기차와 우주여행을 실현하고 화성여행을 추진하고 있는 일련 머스크가 그런류의 또라이 들이다. 남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시도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러한 류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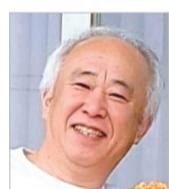
분간 미국을 따라 갈 나라가 없다고 하는 이유도 미국이 이러한 또라이들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주위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소 기이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나쁜 의미의 “또라이”라고 한다. 낙인찍으며 경계하거나 멀리한다.

또라이로 소문나면 조직에서 출세가 어려워지고 소외된다. “또라이 제로”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

충청의 소리 중고제 부흥을 꿈꾸며

출입기자 칼럼



홍석원
쿠키뉴스 충남본부장

예운임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현재 결정면은 인구 2000명 남짓의 전형적인 농촌이지만 원래 흥성군이란 지명이 일제강점기 흥주군과 결성군이 합쳐져 만들어졌을 정도로 한 때 인구 10만이 넘고 인근 지역을 통괄해왔던 역사적, 지리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조선시대의 관청인 동헌과 형방청이 남아 있고 결성읍성 또한 복원을 기다리고 있다.

결성이 전국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는 ‘결성농요’가 1993년 제35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으면서다.

이 농요는 결성면 성남리와 금곡리에서 전해 내려오던 노래로 ▲모심은 소리인 겹상가 ▲밀 가는 소리인 겹쟁이 ▲일하고 나서 쉴 힘에 성여놀이를 하며 부르던 지대기소리 ▲논매기를 끝내고 집으로 가면서 흥에 겨워 부르던 장원질 소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는 충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이곳 사람들의 특징은 농요에서 보듯 목소리가 우렁차고 다이나믹해 지루하지 않다.

그래서 판소리가 나올 정도로 질적으로 우수하고 목청 자체가 다른 지방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다.

특히 충청도 어법에 충실한데다 양반사회 음악들이 가미되다 보니 격조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았다. 최선달이 배출된 것도 결성사람 특유의 목청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당대 최고의 소리꾼으로 소

문이 더해진 어느 날 최선달은 한양으로 불려가 어전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임금이 그 소리에 얼마나 반했던지 덜컥 ‘선달’이라는 벼슬을 하사했다. 그 후로도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하사받는 예인은 판소리가 유일했다고 전해진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고 미래를 설계하는 밀거름이다. 결성면의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도 상징적 인물인 최선달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중고제 시조격인 최선달의 생가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판소리 수공가의 발상지인 태안 별주부마을이 브랜드화한 것처럼 이곳 역시 충청도민의 개척정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판소리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 조선 후기 사회상과 예술성을 반영해 성장해 온 국민예술이기 때문이다.

중고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까지 활약했던 중고제 명창들의 존재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

관련 기록이 미흡하고 그 전승도 끊어졌기 때문에 흔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의 유적, 유물, 관련 증인, 후손이나 제자 등을 찾아내고 보존해야 할 과제가 우리 둑으로 남아 있다.

은근한 속 멋과 쉬이 질리지 않아 소리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하는 충청의 소리 중고제의 부흥을 꿈꿔본다.

아빠의 가르침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20)



소중애 동화작가

[시장님 이빨로 만든 동물원]이었다.

전에 쓴 글을 읽으면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엇갈린다.

‘좀더 잘 쓸 걸. 내용이 헐렁해. 리얼도 부족하고 말야.’

또 한 가지 생각은

‘오우 잘 썼는데? 내가 쓴 글 맞아? 멋진 아이디어, 단단한 구성. 좋았어!’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었다.

[시장님 이빨로 만든 동물원]은 후자에 해당하는 글이었다.

구성도 좋고 교훈도 있고 특히 재미가 있었다. 요즘 쓰는 글에 대한 반성도 할 지경이었다.

어떤 평론가는 내 글 중에서 유독 아버지에 대한 글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고보니 단행본만도 [아빠의 시계] [아빠와 함께 목욕을] [아빠의 가르침][구슬이네 아빠 김덕필씨] [아빠의 생일떡][아빠를 버렸어요] 많다.

성장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하고 살아서 아빠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빠에게 모든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 자신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본 아빠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다. 여섯 아이들을 둔 훌아비로 살기도 녹록지 않았을 것이고 새 아내와 아이들간의 불협 화음도 적잖게 삶을 고달프게 했을 것이다.

아빠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지만 다행히 내 삶은 행복하다고 자신한다. 다시 한번 생각했다. 삶은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

친구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자주 한탄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수련회 오락시간에 남자애가 팬티를 머리에 쓰고 나와 영망진창인 춤을 췄다.

-잔 어디서 저런 것을 보고 배웠지-

난 그 아이 아빠를 의심했다.

물론 모든 것이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하다.

아동발달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고주망태 파렴치한 아빠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다. 성인이 된 형제를 인터뷰 했다. 아빠와 달리 성실한 형. 아빠랑 똑같이 파렴치한으로 자란 동생.

둘은 언터뷰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내가 아버지를 보고 뭘 배웠겠어요-

부모말고도 우리에겐 가르침을 주는 책이 있어 다행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아빠의 가르침]을 다시 읽었다. 맨 앞에 실린 단편

제342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동의안 등 61건 심의

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청취

충남교통연수원장 후보 인사청문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8일 제34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1일까지 14일간 6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산하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진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당 교섭

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처음으로 진행하며, 13일과 20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9명이 발언대에 올라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하고, 이밖에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우리 도의회는 올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 행복을 위한



충청남도의회가 8일 제34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1일까지 14일간 6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룹게 출발하는 2023년, 충청남도의 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더 낮은 말했다.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무리한 기관 통폐합 추진' 질타



충청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시대와 역행하는 거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9월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5개월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며 "연구용역비 8억 750만원은 얼마나 급했는지 9월 도의회에서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전액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 및 임원 임기제도가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시·군 조형물 통합관리 해야'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2)은 "내포신도시 내 설치된 15개 시·군 테마광장 상징 조형물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개 시·군 상징 조형물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내포신도시 내 간선도로변 주요 교차로 부지에 설치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형물이 내포신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어 내포신도시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조형물을 보고 이곳이 내포신도시인지 다른 지역인지 당황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치한 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공주 학교재배치, 균형있게 이뤄져야'



충청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은 공주시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초·중·고교 균형 재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공주시 원도심 지역인 강남에는 1980년대 중반 신관동을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은 5개의 학교밖에 없고, 도심과 떨어져 도보 통학이 쉽지 않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학교의 단순 이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원도심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만큼 단순한 이전과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강북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하자'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방 의원은 "올해는 4·29 상해 의거 91주년으로, 윤봉길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이어가기 위해 윤봉길 의사의 고장인 예산군 충의사에 윤봉길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4월 윤 대통령은 충의사 내 4·29 흥국우공원 재현, 회중시계 광장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계획' 보고를 받고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사공원 내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해 나라사랑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자고 강조했다.

'충남교육, 조기 유학생 유치 필요'



충청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충남이 지금처럼 학교별로 예산만 배정·지출하는 것만으로는 혁신교육을 이룰 수 없다"며 "창의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충남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진 참교육자 양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비전제시와 학교 분위기 조성 ▲폐교를 활용한 조기 유학생 유치 등의 정책들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조기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핵심인재를 키워내는 교육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홍성·예산 행정통합 고민해야'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충남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천안, 아산, 계룡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역 소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특수한 공통분모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활용해 특별자치체 설립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절실'



충청남도의회 전의현 의원(서천1)은 '농어촌지역 난방비 지원 및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지역 현실과는 괴리가 큰 도시 중심의 정부 정책에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등유 유류세 한시적 추가 인하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연결망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어 "효율적인 난방비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립대 수산·해양학과 신설 촉구'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충남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수산·해양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 어업인구는 2021년 기준 1만369명으로 전국 9만7062명 대비 14.15%로 전국 순위 3위이나, 고령화 비율도 45%로 전국 최대"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폐쇄 석탄발전소 문화공간 조성 제안



충청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은 "보령화력 1·2호기의 경우는 국가보안시설로 다른 발전소와 인접해 있어 이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며 "1·2호기 중 1호기라도 원형 그대로 옮겨 충남의 산업유산으로 보전하고, 서해의 낙조를 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제를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바꾸는데 충남이 앞장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편 의원은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는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전력생산 지역 주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자급률·농가 감소에도 체계적 대책 미비

기본법 통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 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 1500억 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 7000억 원 규



충청남도의회는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 목표·기본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 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현재 2022년 12월 21일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학생 취업처 확보 및 교수역량강화 강조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청양)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해졌으므로 예산교육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관련 “현재 자료와 일정 등이 현행화되어있지 않고, 자료와 홈페이지의 정보가 다르다. 빠른 시일안에 수정해서 도민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금산1) 위원은 스마트팜 관련 학과와 관련해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 문제가 중요하다. 스마트팜과 관련해 학교에서 취업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화(홍성2) 위원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올해에도 우수 공무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재운(계룡) 위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학과별 부적응학생, 중도탈락 학생 집중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천안3) 위원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취업률 또는 교수님들의 연구성과와 활동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도민교육 운영과 관련 “대면 교육이 되면 시설에 와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건물이 노후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현재 행정동에 석면철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주문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올해 첫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사회와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청소년의 심리지원과 건강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지원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최근 도청 내에도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대거 활약하고 있다”며 “도내 여성리더를 인력풀로 관리하고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여성가족플라자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한 후,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와 청소년진흥원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신중하게 재검토한 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천안 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 “여성 폭력피해자나 학교밖 청소년 등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과 관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재취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일자리 문제이기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와 관련 “충남 전체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타 시·군과 예산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 중소업체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최창용 의원(당진3)은 “당진 고덕당진간 619호 도로 표지판 설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도로 상태도 약호하지 않다. 철저한 현장 확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도훈 의원(천안6)은 “자동차 운행 단속 시 과태료 체납 징수도 미비하고, 처벌보다 사전 계도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는 사전 예방정책에 더욱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의원(공주1)은 “공주 관불산 채석장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인허가 부서와 다시 한번 사업 중지 재검토를 추진해 달라”며 “또한 공주 지역 도로 확장·포장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사전 예방조치로 도민 안전 유의 당부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통해 충남건설본부와 남부출장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조치로 도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도로 제설작업 예산 등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겨울철 폭설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은 “당진 619호 지방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상습결빙구간 사전 예방조치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을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건설본부는 지역업체 수주를 최우선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해달라. 지

충남 대표브랜드 구축 위한 노력 요구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관광재단, 백제문화재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충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안장현 위원(아산5)은 “지난해 사업과 올해 사업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지역과 연계해 다양한 기획 공연 개발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에게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안내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은 역사를 복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만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충남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및 복진 증진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은 문화재단의 흥보비 확보 노력에 대해 질의하며 “낮은 좌석 점유율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관광재단과 통합되는 만큼 업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충청남도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충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2024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어느 부서보다 관광재단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개발 요청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농업기술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개발 등으로 농업인의 수익성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현재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시설관리 등 농기들의 경영비 부담이 심각하다”며 “도 농림축산국과 협력해 난방비를 절감할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현재 스마트팜 관련 정책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농업정책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수익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수 위원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예찰도 중요하지만, 업무

효용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예찰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예찰 시스템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보급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술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직 연구원들이 현직 연구원을 보조하는 근무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은 “밭작물은 이모작 진행에도 수익성이 적어 다른 작물 재배 전환이 미비하다”며 “다른 작물 재배 전환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일관기계화사업(농기계 장기임대)을 확대 보급해달라”고 밝혔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에서 개발된 품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 위한 실질적인 교육 펼칠 것 촉구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13개 직속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듣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펼쳐달라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13개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 각 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돼 있다”며 “추진계획에 따라 철저히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 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 융합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전문적으로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진로융합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충남에 설립되는 만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시설 투자를 충분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연구정보원의 전산직 현원과 전년 대비 운영비 감소 사유를 점검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연구 결과의 신속한 현장 반영을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다문화 꿈길 성장 캠프 권역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인 통학 편의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신순옥 위원은 “충무교육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하였던 숙박 연수 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재개했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진로융합 활동 프로그램이 잘 창작되어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활동이 학생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달라”고도 했다.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2023.1.1 시행

내고향 충남을 살리는 이주 특별한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자



충청남도



충청남도민



주민 복리 사업 시행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